



센싱 솔루션으로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기업 (주)바이다

바이다는 2015년 설립 이래 밀리미터파 레이더(mmWav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 및 스마트 센싱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최고의 기술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를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인프라·교통안전·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다의 강점은 기술적 신뢰성과 현장 적응성에 있다. 국내 최초로 경찰청 성능검증시험(BMT)을 통과한 무인 단속 레이더를 비롯해, 악천후와 야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센서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실시간 데이터 전송, 유지보수 용이성, 기존 ITS 인프라와의 호환성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도로공사(NEXCO), 태국 도로공사와의 협력으로 아시아 시장을 개척했으며, 방글라데시·파라과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해 신흥 시장 입지를 넓혔다. 향후 유럽 교통 인프라 현대화와 중동·아프리카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혁신적 솔루션으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

- 바이다 김병성 대표

바이다의 주된 사업 영역은 무엇이며, 핵심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이다는 2015년 벤처기업으로 출발하여, 밀리미터파(mmWave)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 및 스마트 센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를 만든다”는 기업 철학 아래, 교통·자율주행 인프라부터 헬스케어 분야까지 폭넓은 응용 가능성을 모색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히 센서를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양산-시스템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다는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여, 차량 충돌 방지·보행자 보호·교통 혼잡 관리 등 교통안전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도시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현장에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율주행과 스마트 시티 구현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다가 개발한 레이더 센서는 악천후·야간 등 가시성이 떨어지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소형화·저전력화·고정밀화를 동시에 달성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데이터를 단순 탐지 수준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객체 분류와 추적, 행동 예측까지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통합형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다는 교통·모빌리티 분야를 넘어 헬스케어와 보안, 생활 공간 모니터링 등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호흡·심박 감지, 노약자 움직임 인지 등 레이더의 비접촉 측정 특성을 활용한 헬스케어 응용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기술 혁신을 통해 바이다는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할 때, 바이다 기술의 강점 또는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탁월한 기술력

국내 ITS 및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적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국내 최초로 경찰청 BMT(성능검증시험)를 통과한 무인 단속 레이더 개발입니다. 이를 통해 자사의 레이더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높은 정밀도와 신뢰성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100% 자체 개발 기술만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큼니다.

사용자 중심 설계

또한 바이다는 사용자 중심 설계 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지 기능을 넘어,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정확한 위치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 실제 사용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유지·보수의 간편성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유연성을 통해 현장 운영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높은 시장 내 적응성

기존 도로 ITS 시스템과의 높은 적응성 또한 바이다의 강점입니다.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뛰어나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통합이 가능하며, 악천후나 야간과 같은 가시성이 떨어지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는 다양한 도로 환경과 기후 조건에 대응해야 하는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용 효율성

마지막으로, 바이다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와 긴 수명을 바탕으로 고객사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꾸준한 유지 계약과 재구매로 이어지는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처럼 바이다는 기술적 신뢰성, 사용자 중심성, 환경 적응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에서 어떤 기술을 시연하셨나요? 현장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BYDA ACC 감속 유도 장치를 성공적으로 시연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CC)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돌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실시간 정보 수집과 함께 가상 저속 주행 타겟 생성 기술을 접목하여 운전자에게 시각·청각 경고를 제공하고, 동시에 차량의 자동 감속을 유도하는 기능은 현장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기존의 단순 보조 수준을 넘어,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현장에서 만난 여러 관계자들은 본 기술이 도로 작업 구간의 안전 확보와 돌발 상황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단순히 교통 흐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바이다는 이번 시연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향후 상용화 방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동력을 얻었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관심은 바이다가 앞으로 더 단계 더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데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바이다 김병성 대표가 애틀란타 ITS 세계총회에서 자사의 ACC 감속 유도 장치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해외 수출 성과와 함께 아시아와 남미 외 대륙에서의 고객사 다변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 도로공사(NEXCO)와 태국 도로공사에 자사 레이더 솔루션을 공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와 파라과이의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레이더 시스템을 납품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를 통해 신흥 시장에서도 바이다의 경쟁력이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바이다는 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시장을 새로운 도전 무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U 교통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이미 확보한 해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고객사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교통 및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성능평가와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 확대는 바이다가 새로운 매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바이다는 해외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접근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바이다는 지난 24일 베트남 국영기업 치남과 ITS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바이다는 어떤 인재와 함께 성장하고 싶는지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주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와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인재는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혁신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다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바이다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이다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조직 문화를 중시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팀워크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적인 태도를 가진 인재와 함께할 때,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이다는 이러한 인재와 함께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바이다가 세상에 꼭 필요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바이다는 단순히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도시, 그리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밀리미터파 레이더 기술을 통해 교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험을 예방하고,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로 이어지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바이다는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상을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이다가 세상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